

유럽에서의 두개 수의학관련 학술대회에 참석하고서 생각한다

이 장 략

1994년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왕립수의과 농과대학교(The Royal Veterinary and Agricultural University)에서 체류했다. 이 두달 사이에 8월 7일부터 11일까지에 걸쳐 영국 에딘버러 소재 에딘버러대학교(The University of Edingurgh) 본부의 일부 건물인 애플톤타워(Appleton Tower)와 조지스퀘어 강의동(George Square Lecture Theater)에서 열린 제 6차 수의약리학 독성학 유럽연합 국제학술대회(The 6th International European Association for Veterinary Pharmacology and Therapeutics Congress)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에 걸쳐 덴마크 왕립수의과 농과대학에서 개최된 제 27차 수의학 역사 국제심포지엄(The 2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History of Veterinary Medicine)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이번 에딘버러에서의 제 6차 대회는 수의약리학 독성학 유럽연합학회의 정관에 따라 코펜하겐에서의 제 5차 대회(본지 1991년 10월호 참조)에 이어 3년만에 열리는 것이었다. 제 7차 대회는 3년후인 1997년 6월에 스페인의 마드리드(Madrid)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어 있다. 이번 제 6차 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약 500명이 참석했고 모두 350편의 논문이 11개의 분과로 나누어져서 발표되었다.

한편 이번 6차 대회에서는 전체 참석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수의약리학 독성학의 최근 발전추세를 소개하는 6편의 특별강연이 실시되었다. 그밖에도 대

회기간 중에 동물실험대체법에 관한 연수회와 유전공학 및 유전자 조정기법에 관한 연수회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또한 약물동태학에 관한 특별연수회가 대회종료후 2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대회기간 중 매일 저녁에는 대회참석자의 상호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가지 화려한 모임이 열렸다.

이번 제 6차 대회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참석자가 4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수의학의 현황을 세계 수의학계에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참석자가 발표한 연구논문 제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즉, 충남대 수의대의 윤효인(尹孝仁)씨가 약물동태학을 다루는 제 1분과에서 5인 공동명의로 연제 "Ciprofloxacin in horses : antimicrobial activity, protein binding, and pharmacokinetics"를 구두발표했고, 충남대 수의대의 박승춘(朴勝春)씨가 같은 제 1분과에서 4인 공동명의로 연제 "Pharmacokinetics of norfloxacin in horses and rabbits after intravenous intramuscular or oral administration"을 내걸고 포스터전시 겸 구두설명을 실시했고, 충남대 수의대의 김명철(金明哲)씨가 수의치료학을 다루는 제 3분과에서 2인 공동명의로 연제 "Effects of doxapram and yohimbine on tiletamine-zolazepam anaesthesia in dogs"를 구두발표했으며 그리고 서울대 수의대의 류판동(柳判童)씨가 분자약리학과 약물구조론을 다루는 제 8분과에서 5인 공동명의로 연제 "Large conductance Ca-activated potassium channels from coronary smooth muscle reconstituted into planar

*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수의약리학)



**6th International EAVPT Congress
Edinburgh**

7 - 11 August 1994

제6차 수의약리학독성 유럽연합 국제 학술대회 포스터

lipid bilayers"를 내걸고 포스터전시 겸 구두설명을 실시했다.

이번 코펜하겐에서의 제 27차 수의학 역사 국제심포지움은 왕립수의과 농과대학교의 아빌고 기념교사 The Abildgaard House의 원형강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심포지움의 참석자는 약 100명이었다. 참석자는 주로 유럽과 미국의 수의대를 정년퇴임했거나 정년퇴임을 앞둔 노장교수들이었다. 심포지움의 주제는 4개이었다. 주제는 수의술 발달과정, 제 2주제는 역대 수의학 관련저작물, 제 3주제는 수의학 역사박물관 그리고 제 4주제는 잡종 연재이었다. 이들 4개 주제에 따라 모두 3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심포지움 개최기간중 매일 오후에는 유관기관 견학 및 사교적 연회가 이어졌다. 이번 심포지움의 끝순서로서 수의학 역사학회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학회공용어를 영어로 한다는 회칙개정안이 가결되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일부 노장회원이 각자의 국어로 연구발표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그간 회의집행이 순조롭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었다.

수의역사학회는 1976년에 창설되어 원칙적으로 2년마다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왔다. 다음 28차 국제심포지움은 이례적으로 1년 뒤인 1995년 8월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Veinna)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빈 수의과대학의 신축교사가 내년에 준공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이번에 위의 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자 필자로서는 새삼스럽게 느끼는 바가 많았다. 필자가 처음으로 참석한 수의약리학 관련 국제학술대회는 1967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제 18차 세계



**HISTORIA
MEDICINAE VETERINARIAE**

FOUNDED 1976



**2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HISTORY OF VETERINARY MEDICINE
COPENHAGEN 1994**

제27차 수의학역사 국제심포지움 포스터

수의학 학술대회이었다. 그 후에도 주로 유럽에서의 수의약리학 관련 학술대회에 몇차례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한국인으로서의 저혼자의 외톨이 참석이었고 회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구경만 하는 처지이었다. 회의참석비용도 다른 나라의 지원으로 충당했다. 더우기나 처음 한두차례의 경우는 발표할 능력도 문제이었거니와 발표연제 제출 마감 등의 각종 대회운영규정에도 어두워서 발표에 참여하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의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환경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필자로서는 당연한 결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에딘버러에서의 대회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수의학도 이제는 적어도 젊은층은 국제학술대회에서 당당히 우리겨레의 저력을 과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구나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 힘으로 연구한 것을 우리나라 비용으로 국제적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으니 더 말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수의학 교육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그리고 국내에서 수의학을 이수한 우리 젊은 수의학도의 상당수효가 다시 선진외국에 나가 수의학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우리나라의 대학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한국수의학의 앞날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근년에 와서 우리나라 젊은이가 국제무대에서

과학·예술·체육 등의 여러 문화분야에서 오천년 전통의 문화민족으로서의 재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음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한 일로 믿어진다. 수의학분야의 젊은이라고 해서 어찌 예외일 수가 있겠는가. 자유롭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의 젊은 수의학도는 이제 시야를 넓혀야 한다.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여 당당히 세계무대에 도전하여야만 한다.

한편 이번 수의학 역사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고서는 우리의 수의학 역사가 얼마큼 규명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의 중요성은

온 세상사람이 익히 알고 있다. 우리의 수의학 역사가 몇분 선배교수에 의해서 이미 단편적 또는 개괄적으로 규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의 수의학 역사에 관해 규명정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유럽의 대부분 수의과대학은 자기나라의 수의학 발달사를 세밀히 정리하고 있고, 대학은 오래 수의학 역사발물관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수의학 역사도 하루 빨리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여 세계수의학계에 뚜렷하게 내놓아야만 할 것으로 믿어진다.

수의사구함(부장급)

농장 판촉유경험 수의사 구함
연락처)삼화동물약품

전화 832-1462, 843-7737